

퇴계의 청소년시절과 학문탐구

박 군 섭*

퇴계의 청소년시절에 관한 고찰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유교적 전통사회의 시각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퇴계는 모자가정의 난관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부단한 자기 활동, 자기 결정 과정을 통해 정체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윤리적 과제와 진로 문제는 중요한 논점이었던 것을 말해준다. 퇴계는 청소년기에 위기지학을 추구하는 학문적 지향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상적 인간상을 정립해나갈 수 있었다. 그것은 청소년기에 갖추게 되는 윤리관이나 생활태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초석임을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청소년기에 정립된 정체성과 윤리의식은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퇴계의 청소년시절에 대한 연구는 오늘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를 다변화하고 논의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삶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 머리말

청소년기의 시간적 범주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12, 13세에서부터 신체적 성장이 거의 끝나는 23, 24세까지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유교적 전통사회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소학』에 의하면, 13세가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15세에 성동(成童)이 되면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고 20세가 되면 관례(冠禮)하여 비로소 예(禮)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小學』, 卷1, 「立教」). 이로 미루어 볼 때, 전통사회에서의 청소년기는 대개 13세부터 성숙한 아동이 되는 15세를 거쳐 관례를 하게 되는 20세 전까지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1996 : 35). 하지만 청소년기의 종료 시점은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사회적·문화적 조건이 갖춰지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그 시간적 범주의 설정은 유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관한 논의는 생리적·심리적·도덕적 영역의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논점은 바로 도덕적 가치에 대한 고려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에 있다. 유교경전에서는 청소년기의 학문탐구에 관한 견해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근대적 성격과 중국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경전적 근거와 지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청소년시절에 대한 사례를 종합하여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청소년기를 모자가정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보냈던 퇴계 이황(1501~1570)의 학문적 성장과 발전 과정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출생 이후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연속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시작은 12, 13세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논의에 있어서는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에 대한 확연한 구분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년시절에서 청소년시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생활과 교육의 중요한 배경과 토대가 되는 가정 상황에 대한 통시적(通時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종료 시점은 성인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조건인 결혼이나 경제적 자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퇴계의 청소년기에 대한 고찰의 시간적 범주는 적어도 결혼(21세) 전인 20세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청소년기에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정신적인 성숙과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련을 쌓는 일이다. 정신적인 성숙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일생을 그르치는 문제일 수 있다. 정체성의 핵심 요소인 윤리의식은 청소년기에 일단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도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퇴계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도, 그가 윤리적으로 자유로운 자율적 인격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자기반성과 수련의 과정을 거쳤는가를 밝히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계가 모자가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이를 이겨내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도덕적 의지와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은 많다. 그 기준은 물리적 환경의 작용에 관한 논의보다는 자기 활동, 자기 결정의 논리를 드러내는 방향의 것이어야 한다는 게 교육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다. 교육론에 있어서 삶의 현실의 극복과 초월이라는 자기 극복의 과정은 물리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의 문제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퇴계의 청소년시절에 대해 학문탐구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인간 의지의 표현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II. 모자가정의 극복과 초월

퇴계 이황의 경우는 전형적인 모자가정에 해당한다. 퇴계의 아버지 이식(李植)은 처음 결혼한 김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김씨 부인은 29세로 세상을 떠났다(『退溪全書』, 卷46, 「先妣贈貞夫人金氏墓碣識」). 후취로 들어온 박씨 부인은 4남을 두었는데, 퇴계는 그 중 막내였다. 퇴계가 태어난 지 7개월만에 아버지가 4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退溪全書』, 卷49, 「先府君行狀草記」). 이 때 어머니 박씨 부인은 32세의 젊은 나이였다. 첫 부인 김씨 소생의 맏아들 잠(潛)이 결혼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어린 아이였다. 그러므로, 퇴계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홀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김씨 소생의 2남 1녀에게는 계모가 되는 셈이다.

유교사상에서도 편모와 모자가정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성격이 강하다. 유교의 모자가정에 대한 왜곡되고 굴절된 인식은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것이었으며, 이는 유교 전통사회의 교육 문제를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박균섭, 1989 : 13-14).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독단은 이념적 규정으로서도 나쁘지만, 사회적·문화적 현실로서도 나쁘다. 흔히 모자가정을 언급할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과부 또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말에는 차라리 폭력에 가까운 편견이 깔려 있다. 퇴계가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을 편모 슬하에서 보냈다면, 그가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는가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 자신은 난관의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퇴계는 선비묘갈지(先妣墓碣識)에서 어머니의 가르침과 이를 따랐던 형제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어머니는……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에 더욱 힘쓰셨다. 연산군의 폭정을 당하여 세금 거두는 일이 더욱 가혹하고 성화같이 파산하여 몰락한 사람이 많았는데도, 어머니는 어려운 일을 견뎌내고 먼 앞일을 생각하여 옛 가업을 잃지 않으셨다. 여러 자식들이 점점 자라자 가난을 이겨내고 생계를 꾸려 멀고 가까운 곳에 가서 글을 배우게 하셨다. 매양 훈계를 가하여, 문예를 일삼게 할뿐만 아니라, 더욱 몸가짐을 잘하고 행실을 삼가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 사물을 이끌어서 비유하고 일을 들어서 가르쳤으며 일찍이 친절하고 자상하지 아니 함이 없으셨다.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늘 과부의 자식들은 가르침이 없다고 비방하니, 너희들이 공부에 100배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모함을 면하겠느냐”고 하셨다.……비록 문자를 배운 적은 없었지만, 평소에 아버님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훈계를 익혀들었고, 여러 자식들이 학문을 익힘에 미쳐서 때때로 깨달은 바가 있어, 의리를 알고 사정에 밝아 그 식견이

군자와 같았다. 그러나 그 문채를 안으로 머금고서 밖으로 드러내는 일이 없이 늘 겸손했을 따름이었다(『退溪全書』, 卷46, 「先妣贈貞夫人朴氏墓碣識」).

모자가정의 교육 문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경제적 기반에 대한 고찰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계의 어린 시절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머니 박씨 부인은 몸소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에 더욱 힘썼으며 이를 통해 가난을 이겨내고 생계를 꾸려나갔다. 퇴계는 유년·청소년시절의 사회상에 대해 부역과 취렴이 혹독하여 많은 사람들이 파산과 몰락에 직면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근면과 검소라는 내핍의 덕목은 마땅한 선택이었다.

구조적·생물학적 결손 상황에 처해있는 모자가정의 경우는 일반 가정보다 학비 보조를 부담 없이 감당해줄 만한 소득이나 경제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자녀들을 성장시켜 때를 놓치지 않고 결혼시키는 일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退溪全書』, 卷46, 「先妣贈貞夫人朴氏墓碣識」). 퇴계는 모자가정의 경제-교육 문제의 일원성을 말하여 “어머니는 40여 년 동안 과거(寡居)로 계시면서 (자식들을) 고생스럽게 길러 성장시키고 혼가(婚嫁)에 있어서도 때를 놓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 온갖 뒷바라지에 힘써 학업을 성취시켜 옳은 길로 들게 하셨다”고 하였다(『退溪全書』, 卷49, 「先府君行狀草記」).

퇴계가 유년·청소년시절을 구체적 지침과 체계를 갖추고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삶의 일상을 뛰어넘는 각별한 의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삶과 교육에 대한 철저한 기준이 자리잡고 있었다. 편모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책임도 이행해야 하며 자녀 양육에서도 아버지의 부재를 보상해야 한다. 박씨 부인은 모자가정의 구조적·생물학적 결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가적인 역할 수행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박씨 부인은 어려운 삶의 일상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 열성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문예를 일삼을 수 있었고 더욱 몸가짐을 잘하고 행실을 삼갈 수가 있었다.

퇴계가 문예를 일삼았다는 것은 격물치지(=궁리)에 힘썼다는 의미로, 몸가짐을 잘하고 행실을 삼갔다는 것은 성의정심(=거경)에 힘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은 이분법적 분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격물치지도 성의정심도 모두 수기·수신·수양에 있어서 불가결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유교 교육의 요체는 “미세한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끝내는 큰 덕을 더럽힌다”(『書經』, 卷7, 「旅獒」)는 말에서, 그리고 “아동을 바른 도리로써 양육하는 것은 성인(聖人)을 만드는 공정이다”(『周易』, 卷1, 「蒙」)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은 일상

생활에서 바른 행동을 취함으로써만이 장차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퇴계가 몸가짐을 잘하고 행실을 삼갈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이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생득적 충동이나 경향성은 사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 사회화의 첫 과정이 곧 기본 습관의 확립이다. 충동을 조직화함으로써 그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인간형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퇴계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의 과부의 자식에 대한 선입견이었다. 이는 박씨 부인이 퇴계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늘 과부의 자식들은 가르침이 없다고 비방하니, 너희들이 공부에 100배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모함을 면하겠느냐”고 훈계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유교의 모자가정에 대한 기본 시각을 보여주는 말로 “과부의 자식이 드러난 행실이 없으면 그와 벗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禮記』, 卷1, 「曲禮(上)」, 卷9, 「坊記」).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는 큰딸에게는 장가들지 않는다”고도 하였다(『孔子家語』, 卷6, 「本命解」). 말하자면 모자가정의 자녀들은 모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사귀어서도 안 되고 아내로 맞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유교교육의 전통이 이어져 오는 동안 이러한 명제들은 검증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왔다(『小學』, 卷2, 「明倫」; 『內訓』, 卷1, 「昏禮」). 모자가정에 대한 편견의 구조를 해체해 보면, 그것은 가정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박균섭, 1999 : 223). 퇴계도 자라면서 이와 같은 왜곡 구조에 유의했고, 이에 따라 모자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방향으로 삶의 기준을 설정해갔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가 과부의 자식이라는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100배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모자가정의 교육 문제에 작용하는 왜곡의 양상을 얼마나 혹렬하게 인식했는가를 말해 준다. 이는 『예기』와 『공자가어』에 드러난 편견을 극복하는 문제에 남다른 집착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계는 과부의 자식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에 초연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자기 관리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아직까지도 우리의 편견으로 자리잡고 있는 명제, 즉 비정상 가정으로 판단되는 모자가정이 문제 아동 만들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견해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모자가정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지닌 분석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결론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접근도 절실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박용현, 1999 : 44-46).

오늘날의 가정을 보더라도, 구조적·생물학적으로 결함이 없는 가정 출신 소년 범죄자 수는 총 소년 범죄자 수나 결혼가정 출신 소년 범죄자 수보다 더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준상, 1996: 224-233). 이는 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을 가정 형태상의 결혼 유무로 귀착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퇴계의 경우, 세상 사람들의 과부의 자식에 대한 비방을 초극하기 위해 구조적·생물학적 결혼성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100배 힘써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더라도, 가정형태상의 결혼 유무를 청소년 범죄와 연관짓는 사고체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결혼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쉽다고 하는 표현에는, 부모가 있고 없다는 형식과 구조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현실이 드러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히 아버지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입을 빌려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고통이다. 그렇다면 모자가정에 대한 편견과 왜곡 구조는 왜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일이다.

III. 입지와 학문적 지향

퇴계는 6세에 이웃 노인에게서 『천자문』을 배웠고, 12세에는 숙부 송재(松齋) 이우(李堦)에게서 『논어』를 배웠다(『李子粹語』, 卷2, 「窮格」). 퇴계의 숙부 송재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조카들을 천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쳤다(『退溪全書』, 卷49, 「先府君行狀草記」). 퇴계에게 있어서 숙부의 가르침은 아버지를 대신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결혼가정이라 할지라도 일가·친척의 보살핌으로, 또는 이웃의 주선으로 교육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유교적 가의식(家意識)은 일가·친척으로 생활영역이 확대되어 갔으며, 따라서 부모를 일찍 여윈 아동에 대해서는 조부는 물론 백부, 중부, 숙부 등이 대리부로서 양육의 책임을 졌다. 퇴계의 경우는 숙부가 대리부로서 양육의 책임을 졌으며 그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이는 퇴계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로 어머니와 함께 숙부를 꼽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退溪全書』, 卷46, 「先考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成均進士礪陰紀事」, 卷49, 「先府君行狀草記」).

퇴계가 6세였을 때 이웃 노인에게서 『천자문』을 배웠다는 것은 그 때 퇴계의 숙부는 퇴계를 가르칠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퇴계가 6세였을 때 한양에서는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났다. 그 때 퇴계의 숙부 송재는 연산조의 승지로 있었다. 송재는 연산군의 승지였지만, 중종반정 때의 공로로 분의정

국공신(舊義靖國功臣) 4등에 책록되고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졌다(『退溪集』, 卷46, 「叔父戶曹參判府君墓碣識」). 그러나 송재는 1514(중종 9)년에 있었던 위훈삭제 때 공권(功券)을 박탈당했다. 이러한 숙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퇴계는 많은 갈등을 보였을 것이다. 그에게는 어머니 다음으로 일생에 큰 학문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퇴계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다음과 같은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의 숙부 송재 아우가 연산군에 벼슬하여 지위가 승지에 이르렀다. 병인(1506)년 정국 때에 폐왕이 나가서 성을 순찰하게 하였는데, 마침 의거하는 군사가 들어오게 되자 함께 참여하여 훈적에 들게 되었으며 사양하지 않았으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퇴계가 그의 묘지(墓誌)를 짓기를 “그 때 궐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할 무렵에 의거하는 군사들 틈에 섞여 있었다……”고 하였다. 이 때 퇴계의 나이 겨우 6세였으니 어떻게 알 수 있으랴(『星湖僿說』, 卷2, 「碑誌」).

퇴계는 12세 때 숙부에게서 『논어』를 배웠는데, 이는 그의 학문적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퇴계가 공부한 『논어』는 주자의 집주본(集註本)이었다. 퇴계는 『논어』를 공부하면서 모든 문장을 다 암송하여 한 자도 틀린 바가 없었다. 퇴계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숙부 송재 공은 아주 엄격하게 학문을 권했으며 결코 타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일찍이 『논어』와 집주(集註)를 뒤돌아 앉아 외울 때 초장(初章)에서 종편(終篇)에 이르기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지만 결코 칭찬해 주지 않으셨다. 내가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숙부가 가르치고 독려한 힘이다(『退陶言行通錄』, 卷2, 「學問」).

특히 퇴계는 “제자가 들어오면 효도하고 나가면 공경한다”(『論語』, 卷1, 「學而」)는 말에 이르러 스스로 경계하기를 사람의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退陶言行通錄』, 卷6, 年譜上, 正德七年壬申). 퇴계는 『논어』를 공부하면서 송재에게 “모든 일의 바른 것이 이(理)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재도 기뻐하면서 “너는 이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였다(『退溪言行錄』, 卷1, 「學問」). 퇴계가 『논어』를 공부하면서 “이”의 의미에 주목했는데, 이는 그의 문인 이덕홍에 따르면 『논어』 자장편에 나오는 주자의 집주에 의한 것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물 뿌리고 쏘며 옹하고 대답하는 것은 곧 형이상의 것이니 이치에 크고 작은 것이 없는 연고이다”라는 말이 나온다(『論語』, 卷19, 「子張」). 이는 퇴계가 『논어』를 공부하되 이를 주자의 견해

를 통해 해석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일찌감치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구도적 성찰을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퇴계는 훗날 이기철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발(理發)·이동(理動)·이도(理到)의 성격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남다른 인식상의 특징을 보였다. 퇴계는 훗날 “이”자를 지극히 중시하여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급인의 학술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자야말로 참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李子粹語』, 卷2, 「答奇明彦」). 그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의 주체적 실존이라는 주리론적 견해를 말했는데, 이는 “이”의 실재와 인간의 실존이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이동준, 1995: 75). 이러한 그의 독창적 이기론은 이미 12세 때 『논어』를 공부하면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퇴계의 청소년기는 사화(士禍)라는 정치적 사건이 연속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가 출생하기 3년 전에 발생한 무오사화(1498)를 비롯하여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좌절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청소년시절, 그의 정치에 대한 견해는 한 마디로 정치무상의 교훈을 체험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그 시대를 사는 젊은이로서 응당 시대 의식과 포부를 지녔을 것이고, 그것은 『논어』에서 말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논어』를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 교훈은 다름 아닌 위기지학과 위인지학(爲人之學)을 구별하여 학문의 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데 있었다. 훗날 퇴계는 『논어』의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위기지학은 우리가 도리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덕행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으로 삼는 것이며, 가까운 데서 공부를 시작하여 심득궁행(心得躬行)할 수 있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위인지학은 심득궁행에 힘쓰지 않고 허식에 힘쓰며 외물을 따라가서 명성과 영예를 구하는 것이다(『李子粹語』, 卷1, 「金富倫錄」).
- ② 군자의 학문은 자기를 위할 따름이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장경부(張敬夫)가 이른바 위하는 바가 없이 하는 것이다. 마치 깊은 산 무성한 수풀 속에 한 그루 난초가 종일토록 향기를 내면서도 스스로 향그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야말로 군자의 위기지학에 꼭 맞는 것이다(『李子粹語』, 卷1, 「記善錄」).

위의 말을 통해 퇴계의 학문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학자 퇴계의 주관적 취미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퇴계는 위기지학의 개념적

이해를 통해, 자기 수양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현실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일을 인욕지사(人欲之私)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퇴계는 12세 때의 『논어』 공부를 통해서 삶의 기준으로서 지극히 겸허한 가운데 인간의 본래적 실상을 확인하는 삶을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퇴계는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 할 진정한 인간상을 근원적으로 탐구하여 어떤 것이 근본이 되는 가치이며 어떤 것이 말단인 것인가, 그리고 참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위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이동준, 1995 : 62-63).

『논어』의 가르침은 바로 소인적 기질을 은폐·미화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신적 성숙과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는 청소년기의 학문적 표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질빈빈(文質彬彬)하거나 명실상부하려면 개개인은 자기의 역량과 분수를 알아서 알맞게 처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흔히 자신의 실상과는 달리 과람(過濫)하게 처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자기의 값을 외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계는 14세에는 독서를 즐겼고 도연명(陶淵明)의 시를 좋아했으며 그의 인간됨을 사모했다(『退溪年譜』, 卷1, 武宗正德九年甲戌). 도연명의 시에 대한 관심은 성리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했다. 그런데 퇴계가 1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도연명의 시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을 사모했다는 것은 그가 도연명을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관심 있는 부문에 대하여 공부하거나 동일시할 대상으로서의 인간상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기의 정신적인 성숙과 관련된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자기의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기의 특징으로서, 퇴계가 도연명을 동일시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그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자 했는가를 예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도연명이 일찍부터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도연명이 중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0년도 훨씬 지난 당대(唐代)의 일이었으며, 더욱더 높은 평가를 얻게 된 것은 송대(宋代)의 지식인들에 의해서였다. 그만큼 송대의 지식인·학자들은 도연명이 추구했던 고매한 삶의 정신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이는 퇴계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

다(사토 히토시, 1994 : 116). 도연명의 고매한 삶의 정신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자연 존중, 자연 애호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자연이란 우리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산림천석(山林泉石)·초목어조(草木魚鳥)와 같은 개개의 자연물 내지는 자연현상 그 자체라기보다도,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그 기상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기반으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14세 때에 도연명의 시를 좋아했고, 도연명의 인간됨을 사모했던 퇴계의 마음은 평생 변치 않고 지속되었다. 그는 훗날 도연명의 자연 존중, 자연 애호 정신을 일컬어 “도연명은 논밭을 손수 갈아야 했지만 그 얼굴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환했다”고 말했다(『退溪集』, 卷3, 「陶山書堂」). 이는 퇴계가 「귀거래사(歸去來辭)」나 「귀전원지거(歸田園之居)」 등의 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도연명의 유유자적한 생활을 읊은 것이다. 도연명을 통해 정치적 관심을 저버리고 누리는 전원생활이 기쁨에 넘친 생기 가득찬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도연명은 명예, 이익, 지위 등 부귀공명만을 추구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속세간의 생활을 단념하고, 대자연에 벗삼아 인간세계의 번거로운 법제에 속박 받는 일 없이 자유를 구가하며 마음내키는 대로 즐기고 산 시인이었다.

퇴계는 훗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글 읽는 것을 어찌 땅을 가려서 하랴. 시골에 있건 서울에 있건 오직 입지 여하에 달려있을 뿐이니, 마땅히 충분히 힘을 써서 날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일없이 헛되게 나날을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退溪言行錄』, 卷2, 「家訓」). 이는 도가 가까이 있는데 멀리서 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퇴계는 학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입지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그가 말하는 입지는 단지 어느 시점에서 갖게 되는 학문에 대한 뜻을 세움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의 제약도 초월할 수 있는 강고한 삶의 기준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퇴계가 글 읽는 것을 어찌 땅을 가려서 하랴”라고 말한 것은 도연명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과 멀어지면 땅은 자연히 멀어진다”고 한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陶淵明集』, 卷3, 「飲酒」).

퇴계는 15세 때에 계의 행태를 읊은 시에서 “돌을 지고 모래를 파니 집이 저절로 된다[負石穿沙自有家].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니 발이 많기도 하구나[前行卻走足偏多]. 한 움큼의 샘물 속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으니[生涯一掬山泉裏] 강이나 호수에 물이 많음을 물어서 무엇하리[不問江湖水幾何]”라고 했다(『退溪續集』, 卷1, 「石蟹」). 이는 퇴계가 도연명류의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정신으로 과욕 없이 청렴하게 살아갈 뜻을 세웠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듯이(『論語』, 卷2, 「爲政」), 퇴계도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는데 그

것은 외적 세계에 이끌리는 위인지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위기지학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공자는 제자 안연(顔淵)을 일컬어 “한 그릇 밥과 한 종지 물에 누추한 거리에 사는 것을 사람들이 그 고생을 견디지 못하거늘 안연이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다”고 했다(『論語』, 卷6, 「雍也」). 『논어』 전편(全篇)을 통하여 공자의 이보다 더한 제자에 대한 찬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안연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도연명의 삶에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계가 관심을 보였던 것도 바로 안연-도연명으로 이어지는 안분지족의 정신이었다. 퇴계의 경우를 통해, 청소년기의 학문에는 확고한 의지와 가치관의 확립이 요청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자가 청소년들에게 학문과 수양에 관한 자각적 태도를 강조하면서 입지(立志)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사실과 맥락을 같이한다. 입지는 청소년기에 추구해야 할 마음의 목표로서 정체성과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

IV. 학문탐구와 인간상의 정립

퇴계는 일찍이 학문탐구의 지향점을 위기지학에 두었지만, 이 학문적 지향은 15세 이후의 학문생활을 체계적으로 이끄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10대 후반의 퇴계는 사실상 독자적으로 학문을 탐구해나갔는데, 이는 그의 나이 17세 때 숙부가 세상을 떠나 학문적 안내자를 잃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퇴계는 숙부에 대해 많은 외로운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몸이 편치 않은 때에도 손에서 책을 놓는 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退溪集』, 卷46, 「叔父戶曹參判府君墓碣識」). 숙부의 죽음은 그에게 많은 상실감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10대 후반에 이르러 퇴계는 지금까지의 학문적 지향을 토대로 하면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단서를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는 17, 18세 무렵 성리학에 대한 탐구를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퇴계는 18세 때에 지은 「야당(野塘)」이라는 시에서 “이슬 머금은 풀은 곱게 물가를 돌렸고[露草天天繞手涯] 작은 연못은 청정하여 모래도 없이 깨끗하다[小塘清活淨無沙]. 흐르는 구름과 나는 새의 그림자는 원래 비치는 것이지만[雲飛鳥過元相管] 하늘을 나는 제비 때때로 물결을 찰까 두렵다[只怕時時燕蹴波]”고 했다(『退陶言行通錄』, 卷6, 年譜上, 正德十三年戊寅). 이 시는 온계리(溫溪里) 인근의 연곡(燕谷)에 있는 작은 연못의 경물을 묘사한 것으로 천리(天理)와 인욕(人欲)

의 문제를 논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김부윤은 이 시를 두고 천리가 유행하는데 인육이 여기에 끼여드는 것을 두려워 한 것이라고 했다(『退陶言行通錄』, 卷2, 「學問」). 퇴계는 이 때 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하여 인육이 들끓는 현실세계에 대하여 조속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만큼 현실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는 다른 성리학자들보다도 마음의 도덕적 명정성을 유달리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러한 성향은 이미 위의 시에 역연히 드러나 있다.

퇴계는 19세 때 『소학』을 읽고 일상의 예절과 효제의 도리를 실천했고, 『논어』를 읽고 치밀한 고찰을 통해 그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태극도설』을 읽고 조화의 근원을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退陶言行通錄』, 卷2, 「學問」). 퇴계는 19세에 『소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계는 이를 드러내서 말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사실을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20세 때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영천에서 글공부를 하는데 박승건(朴承健)이 『소학』을 읽으면서 퇴계 선생의 행동이 『소학』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한 것을 보고 일찍이 『소학』을 읽었는가를 물었다. 이에 선생은 웃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했다(『退溪言行錄』, 卷2, 「資品」).

여기서 퇴계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아직 『소학』을 공부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는 『소학』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지니고 있었지만, 제3자가 보기에 『소학』의 지침대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의 『소학』 공부 수준은 상당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자는 『소학』을 편차할 때에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의 장을 두어 수기·수신·수양의 대법을 갖추었다(『小學』, 卷1, 「立敎」, 卷2, 「明倫」, 卷3, 「敬身」). 이 『소학』은 청소년시절의 퇴계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는 또한 19세 때에 『성리대전』 상·하 2권을 처음 얻어 읽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열렸다고 했다(『退溪言行錄』, 卷1, 「學問」).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 연구를 위해 『성리대전』이 주로 이용되었다. 『성리대전』은 호광(胡廣) 등이 칙명을 받들어 1415(명 성조 13)년에 찬집한 것으로,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통서(通書)』, 장재(張載)의 『서명(西銘)』과 『정몽(正蒙)』, 소강절(邵康節)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주자의 『역학계몽(易學啓蒙)』과 『가례(家禮)』, 채원정(蔡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 채침(蔡沈)의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

篇』 등과 그 밖의 여러 성리설을 이기(理氣), 성리(性理), 도통(道統), 성현(聖賢), 제유(諸儒), 제자(諸子), 역대(歷代), 군도(君道), 치도(治道) 등 13영역으로 분류하여 만든 책이다. 명초에 성리학이 국학으로 채택되면서 송대 이래의 성리학자의 중요한 저술과 성리설이 『성리대전』으로 집대성되었다.

『성리대전』은 태종 연간에 수입·간행되어, 세종대 이후에 경연(經筵)의 교재로 쓰이기도 하고 성리학을 연구하는 지식인·학자들에게 이용되기도 했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연구 단계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1510년대 이후 기묘 사림에 의해 『성리대전』이 학술적 견지에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성리서로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주자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면서 『성리대전』은 송대 이래의 성리설을 충실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비판되기에 이르렀다. 기대승(奇大升)은 “명 성조가……『성리대전』을 찬집할 때에 드러나게 잘못된 곳이 있다……『성리대전』은 주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편수한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다(『論思錄』, 卷上). 주자학이 전면적으로 연구되면서, 『성리대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성리서가 바로 『주자대전』이었다. 『주자대전』은 우리 나라에 1543(중종 38)년에 교서관(校書館)에서 인출·반포되었다. 퇴계의 경우만 하더라도 43세 되던 해인 1543년에 『주자대전』이 간인되기까지 이 책이 있는 줄도 몰랐으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退溪集』, 卷42, 「朱子書節要序」). 이를 감안한다면 퇴계가 19세에 접했던 『성리대전』은 그의 젊은 시절, 성리학에 대한 구체적 이해과정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성리대전』 가운데서도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중점적으로 읽고 공부했다는 사실로 보아, 그가 20세에 접했다는 『주역』 공부와 지적 연계성을 갖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퇴계는 20세에는 『주역』을 읽고 그 의미를 강구하다가 거의 침식을 잊었으며, 이로 인해 마침내 건강을 해치게 되어 그 후에는 크게 아픈 사람이 되었다(『退溪年譜』, 卷1, 武宗正德十五年庚辰). 당시의 학자들 가운데 학문을 탐구하다가 건강을 잃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퇴계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잘 때는 자는 데 전념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데 전념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신을 집중하여 항상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내가 젊었을 때, 분발하여 학문에 힘쓴 나머지 하루종일 쉬지 않았으며 또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병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힘을 생각하여, 잘 때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체험을 쌓아서 자신의 몸을 반성하고, 마음이 옆길로 새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退陶言行通錄』, 卷2, 「學問」).

그런데 퇴계가 건강을 해쳐 고질이 될 정도로 탐닉했던 『주역』은 젊은 날의 퇴계에게 어떠한 삶의 교훈을 가져다주었는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역』은 다양한 인간과 사회적 삶에 관한 논점을 담고있지만, 퇴계는 『주역』 공부를 통해 그의 일관된 관심과 기대를 드러냈다. 퇴계는 『주역』에 대한 공부를 토대로 유정(幽貞)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退溪集』, 卷1, 「幽貞門」). 퇴계가 도산서당으로 들어가는 싸리문에 손수 유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보더라도, 그가 유정이라는 말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는 “유정은 건곤(乾坤)을 믿는다”고 했다(『退溪集』, 卷1, 「當軒綠叢花」). 유정이란 만일 도가 이 세상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명리(名利)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심산유곡(深山幽谷)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살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를 굳게 지켜나간다는 의미이다. 건곤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가난하고 미천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굳게 행하며 살면 길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건곤 즉 대자연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의미가 담겨 있다.

『주역』에서는 “길을 밟는 것이 평탄하다[履道坦坦]. 홀로 있는 사람이 마음을 곧게 가지면 길할 것이다[幽人貞吉]”고 했다(『周易』, 卷1, 「履」). 홀로 있는 사람이 곧으면 길하다는 것은 중심이 스스로 어지럽지 않다는 것이다. 넓은 길을 걸으며 마음은 평안하여 아무런 막힘이 없다(『退溪集』, 卷5, 「陶山暮春偶吟」). 천리가 유동하는 자연은 사사로운 욕망이나 허영심, 이기심이 용납되지 않는 조화로운 세계이다. 퇴계는 개체화의 강렬한 성향을 부정하고 그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심성을 이양(頤養)하였다. 세상의 명예와 이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므로 마음이 고요한 것이 마치 은자(隱者)와 같다. 홀로 자기 몸을 깨끗이 하여 그 행동이 바로고 견고하므로 길하게 된다. 군자는 이괘(履卦)의 깨달음에 따라 과욕을 품지 않으며 학문에 힘쓰고 마음 닦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군자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앞에 닥친 현실에 충실할 뿐이다. 개인으로서의 거짓 없는 인생을 성실히 살면 그만인 것이다. 때문에 남루한 의복에 간소한 끼니만으로도 기꺼이 살아간다. 이와 같은 주지의 말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퇴계도 애독했을 것이 틀림없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천명

을 즐기는데 더 이상 무엇을 의심할 것인가”라는 구절과 또한 천명에 대하여 절대 귀의의 정신을 논한 장재의 『서명』에 나오는 “살아서는 부모와 하늘에 순종하고 섬기며 죽음에 임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갈 것”이라는 구절을 들 수가 있다. 퇴계가 대자연에 대하여 일종의 종교적이라고까지 할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이로 미루어 퇴계가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색의 깊이도 알 수 있다(사토 히토시, 1994 : 104-105).

『주역』은 다양한 삶의 길과 방법론적 모색을 가능케 하지만, 퇴계는 『주역』을 공부하면서 무엇보다도 겸양의 덕을 갖춘 인간상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겸허의 의미를 담고있는 『주역』 제15괘인 겸괘(謙卦)는 퇴계의 일생 일대를 통하여 이룩한 학문적 업적과 인품을 적절히 표현해주는 문구라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추론은 적절성을 갖는다. 『주역』 64괘 중에서 6호(六爻) 모두가 길상을 보이는 것은 겸괘 뿐이다. 겸괘 대상(大象)에 “땅 아래에 산이 있음이 겸이니 군자가 본받아 많은 것을 덜고 적은 것을 보태며 사물을 헤아려서 베풀기를 고르게 한다”고 하였다(『周易』, 卷1, 「謙」). 산같이 높으나 표출하지 않고 묻어두었으니 이는 땅 속에 들어있는 산의 형상이며 겸양의 덕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지의 도는 많은 것을 덜고 적은 것을 보태며 사물을 헤아려 베풀기를 고르게 한다. 이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여러 모로 통찰하여 본래의 상태로 균형을 잡아 주는 것으로 겸도(謙道)를 시행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퇴계 스스로 인격을 수련하여 진실한 자기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권면하고 계도한 삶의 길이었다. 이같이 퇴계는 겸허함에서 인간의 본모습을 찾았다(이동준, 1995 : 65). 겸허함이란 평상심을 지켜가는 중요한 기준일 수도 있다. 퇴계는 평소의 삶의 정신을 스스로 경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는 그가 『주역』에서 터득한 겸허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추켜 올리는가 하면 어떤 이는 너무 잘난듯이 처신한다. 어떤 이는 일상에서 벗어나게 행동하고 어떤 이는 사실을 과장해서 말한다. 어떤 이는 남의 단점을 망령되게 책망하고 어떤 이는 세상의 환난에 너무 쉽게 덤빈다. 무릇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람의 원망과 분노를 사기에 족하여 계속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내가 평소에 깊이 걱정하는 일들이다(『李子粹語』, 卷4, 「答禹景善」).

퇴계가 청소년시절 접했던 일련의 경전은 단지 지적 만족으로 그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문제, 특히 인간상의 정립에 깊이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겸양의 덕을 실천하는 군자로서의 모습은 문인·후학들에게 깊

은 감화를 주었으며 또한 행동의 모범으로 작용하였다. 겸양의 덕은 자신을 낮춤에 있으며 이것이 곧 자신을 가꾸는 일인 것이다.

퇴계는 『주역』의 겸괘를 해석하여 존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하니 빛이 더하고 군자가 낮은 위치에 있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넘지 아니 하니 군자가 일으킨 사업에 유종의 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周易釋義』, 卷上, 「謙」). 퇴계가 인간상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겸양의 덕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되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나도 이러한 탄식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포부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고 나는 내 허술함을 알지 못함을 한탄한다(『退溪集』, 卷11, 「答李仲久」).

훗날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온 것을 반성하면서 겸손한 군자인 퇴계 선생에게 귀의할 것임을 말한 바 있다(『與猶堂全書』, 卷22, 「陶山私淑錄」).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겸허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근거로서 다산은 퇴계의 삶에 주목했다. 이와 같이 퇴계는 겸허한 삶의 자세를 통해 인간행동의 기준과 이념적 지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퇴계의 인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겸양의 덕은 그가 젊은 시절 『주역』을 공부하면서 터득한 것이었다. 청소년기의 윤리관과 생활태도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체성의 핵심요소인 윤리의식은 청소년기에 일단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면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도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퇴계가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겸양과 경(敬)의 실천은 그가 이룩한 성리학에서 실천적인 가치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것은 엄숙하고 차분한 자세로 항상 옳은 일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의 정신이자 자세였다. 퇴계의 이러한 인간상의 확립 과정에 그의 어머니의 보살핌과 숙부의 가르침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그의 청소년시절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가 학문에 대한 탐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인간상을 정립해갈 수 있는 철저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철저함은 어머니 박씨 부인이 강조한 100배의 노력에 비길만한 그런 무게의 철저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퇴계의 청소년시절을 그의 학문에 대한 접근과 이해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퇴계는 모자가정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문탐구와 부단한 수양으로 올바른 인격을 갖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퇴계의 청소년시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활동, 자기 결정 과정을 통해 윤리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존재보다 당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성찰은 그가 인간 형성의 이념을 자체 동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모자가정이라는 구조적·생물학적 절망상황은 각고의 노력이 주어질 때 얼마든지 희망으로 반전될 수 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 성공적인 인간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은 퇴계가 20세 때 탐독했던 『주역』의 기본적인 논조이기도 하다. 『주역』 제36괘인 명이괘(明夷卦)에서는 이를 두고 어둡게 함으로써 밝게 한다고 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세상의 온갖 좌절과 환난을 초극함으로써 발전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눈앞의 수난에 마음이 견디기 힘들지만 그 뜻을 올바르게 가지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두고 『주역』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곧으면 이롭다고 했다.

퇴계는 학문탐구를 통해 이상적 인간상을 정립하는 일을 청소년시절의 과업으로 삼았다. 퇴계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문제에 깊은 이해와 성찰을 보였는데, 이는 그가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말해준다. 정체성의 추구는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성숙의 지표인 정체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정체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윤리의식이야말로 청소년기에 일단 정해지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기에 어떠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갖게 되는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퇴계는 청소년시절에 유학의 이념에 입각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추구했는데, 이는 그의 일생을 통해 일관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적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기질과 결합하여 사회적·역사적·신체적 제약을 받으면서 실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삶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저항

과 장애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간관을 보다 논리적·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리학 체계이다. 하지만 이 성리학 체계에 대한 생동적이고도 체험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유교적 견지에서는 자녀중심의 가족관이나 청소년중심의 사회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퇴계의 청소년시절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인 인간이 자체 동력을 가지고 삶의 세대를 헤쳐나가는 자기 활동, 자기 결정의 과정을 강고하게 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詩經』.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4.
- 『書經』.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4.
- 『周易』. 상해 : 상해고적출판사. 1987.
- 『禮記』.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
- 『孔子家語』. 상해 : 상해고적출판사. 1990.
- 『陶淵明集』. 사부충간초판 99. 상해 : 상해서점. 1989.
- 『性理大全』. 산둥 : 산둥우의출판사. 1989.
- 『朱子大全』. 대북 : 대만중화서국. 1985.
- 『小學』. 서울 : 보경문화사. 1987.
- 『內訓』. 서울 : 대제각. 1988.
- 『退溪全書』(『李子粹語』·『周易釋義』 수록).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 『高峯集』(『論思錄』 수록).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6.
- 『星湖僊說』. 서울 : 문광서림. 1929.
- 『士小節』. 고전국역총서 189.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0.
- 『與猶堂全書』. 서울 : 경인문화사. 1970.
- 교육부(1996). 윤리. 서울 : 교육부.
- 박균섭(1989). 모자가정의 교육을 보는 유교적 시각. 교육연구소식, 제10호, pp.13-14.
- 박균섭(1999). 모자가정의 교육 : 퇴계 이황의 유·소년시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1집, pp.211-229.
- 박용현(1999). 아빠는 꼭 있어야 하는가. 한겨레 21, 제266호, pp.44-46.
- 이동준(1995). 퇴계학적 인간상의 탐색과 전망. 퇴계학보, 제87·88집, pp.61-92.
- 한준상(1996). 청소년 문제.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사토 히토시(1994). 퇴계와 송유의 자연존중 정신. 퇴계학보, 제81집, pp.102-126.

ABSTRACT

Studies in Toigye's Youth

Park, Kyoong-Seop*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oigye's early years, thereby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een crisis in modern days. Having researched into Toigye's youth, this thesis deals with the fact that a sense of one's identity or moral/ethical codes established during teen years can greatly affect a person through his lifetime. Despite that Toigye was brought up by a single mother, he overcame the hardships, gave himself to learning and practise that he finally achieved an ideal as a human being. Toigye has showed it clearly by demonstrating how important it is for youth to establish a standard of morality and value system in order to grow into a well-rounded member of society.

Consequently, delving into Toigye's early years proves its significance, for it addresses diversified researches on teen crisis of modern days, as well as adding depth to discussions on the subject. Thus, Toigye's example suggests that the present in fact a reflection of the past, that contemplation of the tradition can be a basis for profound understanding of our modern times.

* Sungkyunkwan University